

서갑숙의 고백을 진지하게 읽는 마음

김현식 | 한양대 강사 · 서양사

서갑숙의 '성 고백서'를 읽었다. 세평과 달리, 친박하거나 도발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긴 자학과 허무에 이른 방향, 감춰진 열정과 섬세한 감성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의 5계' 즉, '순결하라, 아낌없이 주어라, 오래 참고 견디라, 부단히 노력하라, 고요하라'의 메시지는 얼마나 소중한가. 한 인간의 시린 생을 통해 응결된 사랑의 도그마가 아름답다웠다.

그럼에도 서갑숙의 책은 눈에 밝힌다. 우선 상업주의의 알뜰함 때문이다. 그녀는 말한다. 자신의 몸은 상품이 아니라고. 그러나 막상 그녀의 책은 그녀의 알몸을 요깃거리로 제공한다. 게다가 야한 제목이란! 서갑숙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녀의 소망은 결코 포르노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것은 M과의 완전한 합일이며, 그 상태의 지속이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이 아무하고나 교합하는 그런 여자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런 그녀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며, 여성을 남성의 배설도구로 만들 뿐인 포르노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저 훌훌 털어 버리고자 한 그녀의 순수한 의지가 치부(致富)의 욕망과 야합하지 않았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서갑숙의 글이 부담스런 두번째 이유는 그녀의 어색한 변환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대담하게 고백하던 그녀는 5장에 이르러 갑자기 성담론/성행위의 남성 우월주의를 비난하는 페미니스트, "현대인이여, 마스터베이션을 하자"를 당당히 외치는 섹슈얼 판타지아의 전사 등으로 변신한다. 다 좋

다. 그러나 하나만 물어보자. 고백에 따르면,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정신적인 교류는 제쳐 둔 채 육체"만 탐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혼적 1' 과의 육정(肉情)이나 대학 친구와의 '밀린 숙제'는 무엇인가. 서갑숙의 글이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면, 그것은 솔직함 때문이다. 그러나 5장에서 그녀는 솔직하지 않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는 과장하고 치장한다. 그래서 글이 어둡다.

그러나 서갑숙이 걸리는 주된 이유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합치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도 막상 육체적 쾌감만이 사랑의 전부인 양 부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그녀의 글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남성으로 부상하는 자는 M이다. 어째서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9시간의 정사와 멀티 오르가슴의 수여자이기 때문이다. 분명 대단한 남자이며, 이같은 존재와의 섹스는 축복일 게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변강쇠와 웅녀의 만남이기는커녕, 오히려 '티타임의 정사'를 꿈꾸는 권태로운 성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부부나 연인이라는 이름아래 서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은 섹스 이외의 무엇(예컨대 고통은 반분하고 기쁨은 배가하는 동지애)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서갑숙은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속사정"만 아니라면,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매일매일이 영화같은 나날들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란 바로 이런 속사정을 타고 넘어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서갑숙과 M의 관계는 아직 몽환적이다. 자질구레한 현실을 배제한 채, 멀티 오르가슴만이 존재하는 만남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소망한다. 둘 사이가 돈, 가족, 결혼 등의 현실 문제로 오염될지라도, 그리고 둘 사이의 섹스가 멀티 오르가슴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적어도 그래야만, 완전한 사랑을 찾아 방향했다는 서갑숙의 고백이 진실될 것이기에 말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진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